

# ‘운정동 태양광 발전소’ 재개될까

### 탈락업체 제기 소송

### 9월 대법원 판결 앞둔

### 결과따라 업체 재선정 될 수도

광주시가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을 민간 투자 공모를 통해 추진중인 ‘운정동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사업’이 법정 소송에 휩싸인 가운데 오는 9월 대법원 결정을 앞두고 사업이 2년 만에 재개될 될 지 주목된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우선협상 대상자가 바뀌는 등 법정 소송으로 2년 가까이 사업이 전면 중단됐기 때문이다.

3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북구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자 선정을 위한 소송이 오는 9월 대법원 결정을 앞두고 있다.

앞서 광주교범은 지난해 12월 (주)녹색

환경에너지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배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부적격한 1순위 업체의 지위 박탈은 타당하다”며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을 이긴 광주시가 항소심에서 진 셈이다. 현재 이 사업은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해 8월 원고 측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인 뒤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1심 재판부는 녹색환경에너지가 애초 투자공모에서 1순위 협상 대상이었지만, 컨소시엄 주주로 참여한 LG CNS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고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협상을 진행했으며, 이를 이유로 협상 대상에서 배제한 시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이 사업은 민간투자법을 적용

해야 하지만, 국가나 지자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법을 적용해 처분사유가 부적합하고 청문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광주시에 패소 판결했다.

광주시가 항소심에서 패소하면서 이 사업은 2015년 11월 첫 발을 댄 뒤 장기 표류하고 있다.

광주시는 대법원 판결이 마지막인 만큼 그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사업은 광주 북구 운정동 27만9000여㎡ 매립장에 민자 220억원(빛고을운정태양광 발전소 축 협약 기준)을 유치해 2019년 완공을 목표로 12MW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립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가 승소하면 애초대로 진행하면 되지만 패소하면 업체를 바꿀 수밖에 없어 사업 추진에 있어서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고 말했다.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 ‘전남 수목화비엔날레’ 국제행사 승인

### 내년 10~11월 목표·진도서

‘2018 전남 국제 수목화비엔날레’가 국제행사로 최종 승인됐다. 이로써 수목화비엔날레는 국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돼 전통문화예술 부흥의 산실이 될 전망이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역점시책 ‘남도 문예 르네상스’의 핵심 사업인 국제 수목화비엔날레가 지난 27일 기획재정부 국제행사 심사위원회에서 국제행사의 자격을 얻었다.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국제행사 승인을 신청해 올해 1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얻었다. 2월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돼 전문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이번에 최종 국제행사 자격을 취득했다.

이는 국가가 전남의 대표적 전통문화예술 자원인 수목화의 가치를 인식하고, ‘현대대에 맞는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육성해야 한다’는 미술계의 염원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남도는 “국제행사 승인은 국가행사로서 상징성뿐만 아니라 국비 12억원 등 국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의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전남도는 다음 달 비엔날레 사무국 출범을 시작으로 총감독 선정, 전시계획 수립 등 본격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제 수목화비엔날레는 내년 10~11월 목포 갯바위권과 유달산권, 진도 운림산방권에서 열린다.

8개국 120여명 작가가 참여하는 전시회, 체험·교육프로그램, 국제학술회의 등 수목화를 주제로 한 국제 문화예술 축제로 치러진다.

사전행사인 ‘2017 국제 수목 프리비엔날레’는 오는 10월13일부터 11월12일까지 목포 갯바위권 등 3개 권역에서 열린다.

정순주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국제행사 승인으로 수목화비엔날레는 전남을 넘어 국가 행사가 된 만큼 그 위상이 결코 낮아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성공 개최로 한국의 수목화가 세계로 진출하고 우리의 전통문화예술이 부흥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정기자 jwpark@kwangju.co.kr

## 군 복무 중 부상 보상금 최대 1억원

### ‘군인재해보상법’ 입법 예고

최전방 부대에서 경계근무를 하던 육군 병장이 북한군과의 교전으로 다칠 경우 지급은 보상금을 최대 1660만원 밖에 못 받지만, 앞으로는 1억147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오는 31일 군 복무 중 부상한 병사의 장애보상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한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인재해보상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실현을 위해 국방부가 내놓은 첫 번째 법률 제정안이다.

정부는 국방 분야 국정과제 가운데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

에 해당한다.

현행 제도상 군인의 재해보상은 군인연금법에 규정돼 있지만, 국방부는 군인 재해보상을 보다 합리화하고자 별도의 규범을 마련하기로 했다.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에 따르면 군 복무 중 다친 병사는 1530만~1억1470만원의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병사의 장애보상금(550만~1660만원)보다 대폭 인상됐다.

또 적과의 교전 등으로 인한 전상(戰傷)의 경우 일반 장애보상금의 250%를 받을 수 있고 지뢰제거와 같은 위험한 직무 수행으로 인한 특수직무 공상(公傷)은 188%를 받는다.

지뢰제거 임무 수행 중 부상한 상병이

장애보상금 3급에 해당할 경우 현행법상 83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군인재해보상법이 시행되면 431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순직 군인 유가족의 생활 보장을 위한 순직유족연금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 제도는 순직군인의 재직 기간이 20년 미만이면 기준소득월액의 35.75%, 20년 이상이면 42.25%를 순직유족연금으로 지급하지만,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은 재직 기간과 상관없이 43%를 지급하도록 했다.

또 ‘유족가산제’를 도입해 유족 1인당 5%씩, 최대 20% 가산하도록 함으로써 순직군인 유가족의 생활 보장을 보다 현실화했다.

군인재해보상법이 시행되면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군 병원 치료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건강보험 수준으로 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날개하늘나리

일월비비추

원추리

## 지리산 노고단 정상서 ‘미모’ 뽐내는 여름 야생화

### 이달 말부터 한 달간 절정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달 말부터 한 달간 지리산국립공원 노고단 정상부 일대에 여름 야생화 20여 종이 만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30일 밝혔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최근 노고단에는 날개하늘나리를 비롯해 지리산에서 최초로 발견된 우리나라 고유종 지리터리풀의 개화가 한창이다.

날개하늘나리는 국내에서 자생하는 백합과 식물 중 유일하게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이 밖에 노고단 야생화의 대표적인 원추리와 일월비비추, 큰까치수염, 노루오줌, 흰제비난, 말나리, 범꼬리, 동자꽃 등의 야생화가 필 것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예상했다. 노고단은 국내산에서 최초로 발견된 우리나라 고유종 지리터리풀의 개화가 한창이다.

바람이 많아 키 큰 나무가 잘 자라기 힘들다. 지형적 특성상 바위보다는 흙이 많아 다양한 종류의 야생화가 피기 좋은 환경이다.

과거 노고단은 1990년대 초까지 무분별한 야영과 취사행위 등으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됐으나, 훼손지 복원 작업과 특별보호구역 지정·관리 및 탐방에 약제를 시행한 끝에 예전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 김영춘 장관 “더디더라도 안전 작업을”

### 28일 세월호 수색현장 방문

김영춘(사진)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28일 세월호 수색현장을 방문해 “더디더라도 확인하고, 안전하게 작업하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목포 신항 세월호 수색현장을 찾아 ‘수색과정 중 총 27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

〈관련기사 6면〉

그는 화물칸 정리·수색 작업을 펼치고



경을 직접 보고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안전을 위해 조금 더디게 수색하더라도 세월호 가족들이 이해해 줄 것이다”고 덧붙였다.

있는 세월호 선체에 직접 올라 화물칸 C데크 내부 상황을 살펴보기도 했다. 진흙과 차량, 화물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위험한 작업환경을 구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해수부 장관 임명 다음 날인 지난 6월17일에도 세월호 수색현장을 방문해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은 해수부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고 강조한 바 있다.

○연합기자 young@

## 관세청장 김영문·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

### 文 정부, 차관급 인사 마무리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관세청장에 김영문 변호사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김현중 한국외국어대 교수를 각각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차관급 인선을 단행한 것은 지난 26일 성윤모 특허청장 등 5명을 대거 임명한 후 4일만이며 이날 여름휴가를 떠나기 직전 인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문 신임 관세청장은 경남 울산 출



김영문



김현중

신으로 경남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1부 부

장검사 등을 지냈고 최근까지는 법무법인 지평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김현중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은 서울출신으로 미국 컬럼비아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로스쿨 학위를 받았다.

김 본부장은 참여정부 시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주UN 대한민국대표부 특명전권대사를 역임하며 한미 FTA 타결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한 한미FTA 개정 협상을 이끌어야한다는 중책을 맡게 됐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 태광공인중개사

**상 가 건 물**

1. 쌍촌동 5층 상가건물 대200㎡ 매11,892원(보9,500 월500 포함)
2. 월곡동 4층 상가건물 대471㎡ 매14,892원(보1,592 월780 포함)
3. 용봉동 4층 상가건물 대468㎡ 매11,892원(보1,292 월650 포함)
4. 신가동 3층 상가건물 대273㎡ 매9,392원(보8,000 월450 포함)
5. 용봉동 3층 대로변상가 대1,100㎡ 매2892(840만/평, 용22억 포함)
6. 노대동 3층 상가건물 대831㎡ 매2692원(보1,592 월222 포함)
7. 일곡동 6층 상가건물 대330㎡ 매2292원(보2,492 월900 포함)
8. 서석동 4층 상가건물 대120㎡ 매4,892원(보5,000 월180 포함)

**상 가 주 택**

1. 신정동 3층 상가주택 대180㎡ 매892원(보6,000 월370 포함)
2.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360㎡ 매6,892원(용27억 보9,000 포함)
3.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10㎡ 매10,392원(보3,792 월280 포함)
4.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250㎡ 매5,992원(보6,000 월240 포함)

**공 장 / 토 지 / 기 타**

1. 도천동 하남산단99번로 광산C 입구 공장2동 대1,218㎡ 매1292원
2. 진도군 군내면 나리 바다조망 일야48,600㎡ 매6,692원
3. 신가동 생산단지 담745㎡ 매3,6592원
4. 하남동 일반상업지역 대로변 대770㎡ 매2392원
5.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 전1,207㎡ 매2,992원
6. 산월동 자연녹지 택지조성완료 대290㎡ 매3,392원
7. 장성군 남면 녹진리 1중일반주거 전2,115㎡ 매2,892원
8. 매곡동 대광로제비암 1층 상가 주출입구코너 7㎡ 매5,292원

**부동산 매물 상담 환영**

010-2572-4663 **홍창경**  
북구 문화예술회관 근처

### 태성공인중개사

**상가 / 상가점포**

- 금호동 7층 건물(보증금 5.4억 월1,300만) 매 32억 원
- 금호동 6층 건물(보증금 2.4억 월1,500만) 매 36억 원
- 치평동 5층 건물(보증금 1.7억 월980만) 매 25억 원
- 흑석동 5층 건물(보증금 3.4억 월1,500만) 40억 원
- 하남동 3층 건물(보증금 6.2억 월2,200만) 매 50억 원
- 월계동 1.2층 상가점포 720㎡ 매2692원(보2억 원, 월1,200만 포함)
- 월계동 1층 상가점포 150㎡ 현 의류점 임점 매 13억 원 (보1억5천, 월5백만 포함)
- 월곡동 5층 건물(보증금 4억 월 460만) 매 25억
- 쌍암동 4층 건물(보증금 1.3억 월 1,400만) 매 29억
- 쌍암동 5층 건물(보증금 3억 월 1,450만) 매 35억
- 신가동 4층 건물(보증금 6천만 월 520만) 매14억
- 송정동 2층 상가건물 대385㎡ 건물500㎡ 매 13억

**토 지**

- 용천동 생산녹지, 대로접 9,400㎡ 매 48억 원
- 신정동 생산녹지, 참고용지 3,810㎡ 20억
- 신정동 생산녹지 참고용지 도로접 990㎡ 5억 원
- 광산구 대산동 계획관리지역 전 30,000㎡ 매 45억 (물류창고, 야적장 적합)
- 광산구 대산동 일야 36,000㎡ 매 3억
- 남평읍 우산리 계획관리지역 담 3426㎡ 4억2천만 원 (가든식당 적합)
- 장성군 삼서면 홍정리 대지 1316㎡ 매1억4천(지대농음, 남향)
- 담양군 수북면 수북리 계획관리지역 전 5,000㎡ 매 8억3천
- 담양군 월산면 계획관리지역 전 30,000㎡ 매 16억 원
- 담양군 남면 학산리 대지 1390㎡ 매 3억1천만 원
-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참고용지 4,500㎡ 매 2억 원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전 3,000㎡ 매 1억8천만 원

**매물 접수, 상담 환영**

문의 010-5536-0382 **정현철**  
광산구 장덕동 롯데마트 부근

### 대형토지

- 빛그린산업단지 인근
- 문장공용터미널 근처
- 대로 및 중로 3면 도로접
- 개발가능 생산녹지 5,000평
- 가격 : 저렴하게 협의

H. 010-5236-7458